소비자 · 생산자 믿음과 신뢰의 장 열어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는 지난 9월 27일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임원진 40명을 대상으로「소비자파워유저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교육」을 개최하였다. 국민의 대다수는 우리 농산물 및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 이에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심지 소비자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농약에 대한 과학적 이해제고와 생산농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의 전환의 계기를 갖고자 해마다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올해로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론강의 및 현장실습으로 나뉘어,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주)경농 중앙연구소에서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및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란?」 이론교육과 연구시설 견학을, 경주능금농협사과GAP작목반 회원 생산농가를 방문, 현장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주)경농 중앙연구소 황인천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약은 개발 · 등록 · 유통까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농약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어 잔류농약 걱정없이 우리 농산물을 마음껏 섭취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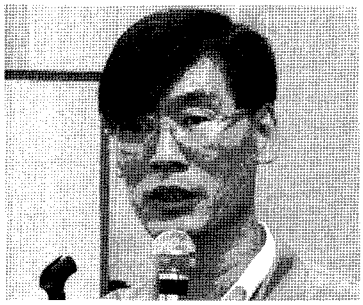
강의 제1주제인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에 대해 강사로 나선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유용만 교수는 농약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의 오해와 농약의 역할 및 필요성, 농산물 안전성관리 체계 등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 또한 제2주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란?」의 강사로 나선 (주)경농 중앙연구소의 이재영 부장은 농산물 안전성 관리, 농산물우수관리의 이해,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농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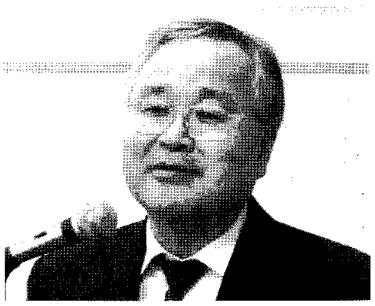
관리에 대해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식 설명을 했다.

강의후 교육생들은 "이론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시설을 견학하며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며 이구동성으로 "오늘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교육생들은 경주시 동천동에 위치한 GAP인증사과생산 농가를 방문, GAP인증을 받은지 3년째 되었다는 서교진 농업인으로부터 "1930년부터 3대째 이곳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이곳에서 출하되는 GAP사과가 전국 최고로 인증받기 위해 이른아침부터 사과나무들과 아침인사로 시작한다"며 한그루 한그루를 자식처럼 사랑으로 가꾸는 남다른 애정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은 청명한 가을 하늘아래의 재배현장을 둘러본후 사과를 직접 수확하고 현장에서 단맛이 가득한 사과를 한입씩 베어먹으며 우리 농촌


황인천 소장


유용만 교수

이재영 부장

현장의 생동감을 마음껏 느끼며 농업인과 도시민과의 웃음꽃이 만발이 피어나는 교육현장을 가졌다.

미니 인터뷰

이 영 희(충북새마을부녀회 회장)

안전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설 터

■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교육이 다소 생소할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의 유익한 점과 개선점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지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축산물에만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농산물에도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있어 우리 농산물이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안전성 검사를 거쳐 시중에 유통된다고 하니 농산물 및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농산물 소비를 위한 당부의 말씀은 무엇인지요?

농약은 고품질의 안전 및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촌 노동력 절감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우리 농업에 꼭 필요한 자재임에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교육전에는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치중하였으나 오히려 과학적으로 관리된다고 하니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를 촉진할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장들부터 앞장선다면 개개인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